

# 다양화·세분화하는 雜誌들

취미·레저·환경·주식투자 등 전문화경향 뚜렷

- 중산층 인구의 저변확대로
- 삶의 질에 대한 관심들이
- 높아짐에 따라 울들어 창간된
- 잡지의 대부분이 전문화,
- 세분화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아울러, 독서계 전체의 기대를
- 걸 만한 대형잡지가 없었다는 점,
- 그리고 오락잡지의 범람 등도
- 올해 탄생한 잡지들의 특징으로
- 꼽을 수 있다.

경제규모의 팽창과 생활패턴의 다양화에 따라 잡지의 전문화·세분화 경향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런 경향은 특히 올해 창간된 잡지들의 성격에서 두드러져, 앞으로의 국내 잡지계 판도 변화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지표를 암시해 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잡지문화의 창달이라는 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이기도 하지만, 저질·영세 잡지의 범람과 이로 인한 잡지문화 전체의 질적 저하라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소리도 없지 않다.

울들어 창간된 잡지의 수는 11월 말 현재 모두 83종, 이 중에서 절반이 넘는 48종이 대중판매를 목표로 간행되는 상업지다. 그 수로 보아서 결코 적지 않을 뿐 아니라, 아직도 엷은 독자층을 감안할 때 새로 태어난 이 신생아들이 무엇을 먹고 성장할 수 있을지 걱정스러울 정도로 많은 양이다.

48종의 상업지 중 독서계 전체의 기대를 모을 만한 대형잡지가 없었다는 것도 올해 새로 탄생한 잡지들의 특징이라면 특징인데, 이것도

앞서 말한 전문화·세분화 경향과 무관하지 않은 현상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종합지로는 「現代」(발행인 李敬南, 11월호 창간), 「太白文化」(강원일보사, 7월호 창간), 「보통사람」(사람들社, 계간) 등 3종뿐이다.

이 중 「太白文化」는 출판·잡지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강원지역에서 탄생한 지방종합지라는 점에서 그 탄생 자체가 하나의 화제거리가 될 정도로 대단한 기대를 불러모으고 있는 잡지다. 현재 전국적으로 지방종합지로는 釜山의 「釜山文化」와 光州의 「藝鄉」 뿐이어서 '지방에서 종합지가 발간되기는 시기상조'라 여겨지고 있던 마당에 강원도에서 불쑥 태어난 「太白文化」는 상식의 허를 찌르는 사건이었다. 이는 앞으로 다른 지방의 월간종합지 탄생을 촉진시키는 촉매제의 구실을 톡톡히 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現代」는 종래의 종합지(국판)와는 우선 판형(4×6배판)이 다르고 편집방향도 크게 달라 기존 종합지들과 경쟁하기보다는 새로운 독자층을 겨냥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그러나, 창간호 이후 지금까지 나온 2호의 내용



이 선거철의 '시류' 탓인지 특히 네 후보에 대한 기사로 가득차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 대한 폭넓은 시사종합양자'를 표방한 의도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한국과 한국인을 보여주는 책'이라는 두루뭉실한 부제를 달고 탄생한 「보통사람」 역시 모 후보의 선거호를 계호로 사용하고 있어 선거바람과 연결된 인상이 짙은 계간지다. 또, 간행된 물량을 모 정당이 전량 매입하여 선거홍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장차의 수명이 얼마나 길지는 당장 판단하기 어려운 느낌을 주고 있다.

## 여성誌도 3종 늘어

여성지쪽에서는 제법 무거운 잡지 3종이 창간 혹은 改題의 형식으로 새로 얼굴을 내밀어 가득이나 경쟁이 치열한 이 부분을 더욱 치열한 열전장으로 만들고 있다. 올해 새로 선을 보인 3종의 여성지 가운데 「新婦」(9월호 창간)와 「뷰티라이프」 등 2종이 여성지 전문의 여원사에서 나왔다. 그중 「뷰티라이프」는 기존의 「美容生活」을 改題한 것이어서 그렇다치고, 「新婦」는 종래 '미혼여성전문지'

이미지 프로세싱 어디까지 왔나? 74  
 춘추전국시대 맞은 의료진진화 시장 18  
 미국 연구소 생활/GTE의 한국인 59  
 행정전산망 기술 신장예견 103  
 우주발명품 소켓 신설 140  
 PC 원 전산사기기도 사용한다 58

국제저작권협약 발효 따른 SW 대응책 98~104  
 100가지 소프트웨어를 위한 10가지/당신도 컴퓨터를 할 수 있다 178  
 자료부록  
 이따위 소프트웨어 관련 자료 100건 158  
 알짜기 정보자료 수록된 동록 134  
 공영이동화 관련 연구자료 198  
 컴퓨터 관련 情報産業 관련자료 수록

'기혼여성전문지'로 二分하던 여성의 독자대상에다 '신부전문지'로 3분화하는 새로운 시도여서 그 제작의도가 돋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것도 따지고 보면 엄밀한 의미에서 독자를 세분화하여 판매목표로 삼았다기보다는 혼수감염체들 중 여성지의 고액광고 물주들이 많기 때문에 광고시장을 겨냥한 기획인 것 같다는 것이 일반의 평가다.

도서출판으로 재미를 본 행림출판사가 잡지계에 뛰어들어 내놓은 여성지 「마드모아젤」(마드모아젤社, 5월호 창간)은 전형적인 미혼여성지로 기존의 「영 레이디」 「레이디경향」 등의 잡지와 초반부터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는 소문.

여성지는 아니지만 여성지와 비슷한 성격의 가정생활잡지로 미국, 일본 등지에서는 오래 전부터 기반을 잡아왔으나 한국에는 이제야 뒤늦게 본격 상륙한 잡지로 「행복이 가득한 집」(디자인 하우스社, 9월호 창간)이 있다. 이 잡지는 이미 국내에서 몇몇 잡지가 그래운 전철을 밟아 외국의 잡지사사와 관련 제휴하에 간행되는 잡지다. 제휴사는 미국의 「Better Homes and Gardens」라는 잡지. '여성생활문화지'라는 부제처럼 실내 인테리어, 아동, 의복 등에 걸쳐 '집을 꾸미는' 여성취향



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 이 잡지의 탄생도 우리 경제의 질적향상과 양적팽창, 특히 일부 부유층과 중산층의 기호에 영합하는 적시타라 할 수 있다.

## 취미레저에서 주식투자까지 다양화

그러나, 울들어 창간된 잡지들에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역시 전문화, 세분화 경향. 종합지나 여성지로는 제대로 충족될 수 없는 특정분야의 정보를 집중적으로 게재함으로써, 비록 저변은 넓지 않더라도, 관심있는 독자의 꾸준한 구독을 노리고 있다.

이 중 「月刊 法律」(법률신문사, 9월호 창간)은 제호가 딱딱한 것과는 달리 '생활인의 신문고'라는 부제 그대로 법률지식을 대중들이 알기 쉽게 풀어서 시사성 있는 사건과 연결시키는 편집방향이 크게 돋보인다. 올해 나온 잡지들 중 수준작을 꼽으려면 단연 이 잡지를 드는 독자들이 많다.

한편, 중산층 인구의 저변확대에 따라 생존이 아닌 생활, 곧 삶의 질을 높이려는 데 대한 사람들의 관심에 맞추어 각종 환경 및 취미레저 전문지도 세분화돼 나왔다.

「아름다운 방」(발행인 동하자, 3월호 창간)은 예전같으면 여성지 기사의 일부분을 차지하는 것에 불과한 목공예, 가죽공예, 종이공예, 봉제인형 등 수공예에 관한 白作가이드지로 발간되고 있고, 다소 전문적이긴 하지만 「플러스」(발행인 원대연, 5월호 창간)는 건축과 인테리어디자인의 앙상블을 중점적으로 취급, 생활환경의 질을 높이려는 관심에 부응한다. 디자이너와 디자인산업의 발전을 위해 디자인분야의 정보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시각디자인」(발행인 김상순, 2월호 창간) 역시 최근의 환경미술 붐과 무관하지 않은 전문지.

레저지로는 각각 여행, 경마 및 승마, 그리고 당구 애호가를 위한 「旅路」(발행인 이한선, 6월호 창간), 「馬場」(발행인 전순득, 2월



# 대교문화가 펼치는 「동화·동시읽기 운동」

## 동시나라

●A5 신판 ●88쪽 ●값 각 권 1,000원

1. 아기 꿈/윤 석중 시/김 광배 그림
2. 귀여운 싸움/박 병업 시/최 준식 그림
3. 소나기 그치고/어 효선 시/김 천정 그림
4. 하늘 뱀새/이 종택 시/최 준식 그림
5. 아버지 첫꼭지/신 현득 시/정 준용 그림
6. 작은 새/유 경환 시/이 규경 그림
7. 땅덩이 무개/김 중상 시/이 한중 그림
8. 고추씨의 여행/김 구연 시/강 인춘 그림
9. 별과 선생님/하 청호 시/윤 동원 그림
10. 날고 싶어요/조 명제 시/강 인춘 그림
11. 금강산 찾아가자/강 소천 시/정 준용 그림
12. 언젠가 한번은/이 오덕 시/김 광배 그림
13. 진달래 마음/김 녹촌 시/김 천정 그림
14. 아침 편지/김 삼진 시/이 형준 그림
15. 산을 오르는 마음/엄 기원 시/박 건하 그림
16. 우리만은/박 경용 시/송 영방 그림
17. 산골 우체부 아저씨/허 동인 시/위 승희 그림
18. 등꽃선/용 시/이 헤리 그림
19. 이렇게 살아 가래요/정 용원 시/최 준식 그림
20. 한 해를 살면/권 영상 시/김 은주 그림
21. 김 동국
22. 최 춘해
23. 제 해만
24. 노 원호
25. 신 언련
26. 김 원석
27. 이상교
28. 공 재동
29. 이 창근
30. 박 덕은

## 동화선물

●A5 신판 ●48쪽 컬러 편집 ●값 각 권 1,000원

1. 민들레와 달/강 정규 동화
2. 섬으로 간 아이들/강 정훈 동화
3. 작은 꽃게의 붉은 꽃잎/배 익천 동화
4. 가장 귀한 커튼/손 동인 동화
5. 손톱만큼 작은 돈/송 재찬 동화
6. 동수와 오리/이 동렬 동화
7. 지워지지 않는 일기/이 준연 동화
8. 꽃밭 속에 울리는 방울소리/임 신행 동화
9. 종달새와 소년/조 대현 동화
10. 사과 선생님/최 영재 동화
11. 줄 줄 아는 꽃/김 병규 동화
12. 누가 뭐래도 우리 엄마/김 원석 동화
13. 목련꽃은 피었는데/박 상규 동화
14. 빨간 노루/손 춘의 동화
15. 가장 아름다운 것/윤 수천 동화
16. 꿈꾸는 시/이 동태 동화
17. 엄마 열목어/이 상배 동화
18. 눈나라 속의 궁전/이 슬기 동화
19. 줄병이 된 장군/장 태벌 동화
20. 아기 참새/최 균희 동화
21. 빨간 털구두/구 진서 동화
22. 너는 어디로 갔니?/김 옥애 동화
23. 석이와 찐남 미영 동화
24. 너는 비보다/소 중애 동화
25. 이야기하는 교실/엄 기원 동화
26. 주인 찾은 캐비닛/이 영호 동화
27. 먼 나라의 눈/이 희성 동화
28. 시간이 없는 나라/정 목일 동화
29. 몸 빛/정 진채 동화
30. 솔 비람 달빛 든 저 대금/정 채봉 동화

▶ 동시나라 시리즈와 동화선물 시리즈는 우리나라 동시·동화를 널리 읽히기 위한 기획도서입니다.

## 제1회 소년 소녀 가장 생활 수기 당선작 모음 엄마 대신 아빠 대신

●A5 신판 280쪽 ●값 3,000원

▶ 자녀를 둔 어른과 특히, 유복한 가정의 어린이가 꼭 읽어야 할 책

## 어린이의 내일을 소중히 담은 파란 마음 하얀 마음

●A5 판 ●값 700원

▶ 대교문화가 펴내는 어린이를 위한 한국 최초의 무크지

**대교문화**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18F  
☎543-2400 (대) 546-5081



호 창간), 「당구」(발행인 김기제, 2월호 창간) 등이 있다. 「料食業」(발행인 김성지, 4월호 창간)도 업계지의 성격이 강하기는 하지만, 이른바 「食文化」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을 제고시킨다는 점에서 이들 레저지들과 마찬가지로 최근들어 확보되기 시작한 생활의 여유를 엿보게 해 주는 잡지라 할 만하다.

이밖에도 울들어 창간된 전문지로는 하루 하루 달려가는 첨단산업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게재하는 「하이테크」(발행인 최인수, 2월호 창간), 시계 및 안경 산업의 최신 동향과 그 역사 등을 다룬 「時計」(발행인 김영호, 5월호 창간), 「光學眼鏡」(발행인 장성기, 3월호 창간) 등이 있고, 사회운동의 차원에서 장애자 및 迷兒 문제를 다룬 「肢體」(발행인 이근정, 5월호 창간), 「迷兒研究」(발행인 김소순, 5월호 창간) 등도 있다.

가장 최근에는 폭발적인 주식열기에 부응, '재산증식을 돕는 증권전문지'를 표방한 「株研投資」(주식연구소, 12월호 창간)가 관심을 끌고 있다.

### 「읽을거리」 취향에 치우치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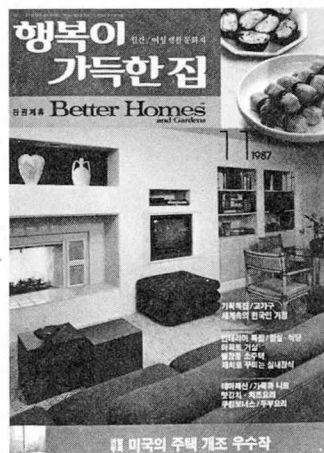
오락잡지 또한 비교적 많이 쏟아져 나와 개방사회의 길목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소비성 풍조를 반영하고 있는 듯하다. 이는 다음 단계인 본격 섹스물과의 징검다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낼 정도로 '벗기는' 취향을 조심스럽게 확대해나가고있어 주목된다.

「笑談」(명랑사, 12월호 창간)이 대표적인 케이스이고, 그 외에도 「유머 펀치」, 「스페셜」 등 비슷한 성격의 잡지 3종이 올해에 쏟아져 나왔다. 이들은 하나같이 기존의 주간지 내용과 비슷한 성격에다 농도 짙은 섹스물과 누드사진들을 대담하게 싣고 있는 것이 특색. 미국의 「플레이 보이」와 같은 잡지가 우리나라에 있다면 다른 오락잡지나 여성지들이 오히려 건강한 방향으로 나갈지도 모르나, 그런

노골적 탈출구가 없는 마당에서 그나마 '사진 예술'이라는 미명 아래 누드사진을 대담하게 게재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런 귀결일 지도 모른다.

특히 「笑談」은 올해 창간된 「茶談」(차생활 문화지) 및 기존의 「史談」과 함께 잡지 제호의 '談'자 유행을 일으키고 있어 흥미롭다. 한때 이땅의 독서계를 풍미했던 「野談과 實話」를 재현시키는 듯한 복고적 인상을 준다.

이렇게 새로운 잡지들이 쏟아져 나오는 가



운데 기존 잡지계에서도 하나의 뚜렷한 변모 현상을 보인 것이 있으니 그것은 소형화의 추세다. 「2000년」이 대표적인 예로서 4X6배판의 크기에서 포켓판으로 판형을 줄였다. 이런 포켓판의 소형잡지는 80년대 들어 급격하게 증가하여 현재는 30여종이나 된다. 이런 소형화 추세는 '읽기와 휴대가 간편하고 제작비가 적게 들며 광고유치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간편한 읽을거리'라는 제작취향은 창간잡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여서 무겁고 심도 있는 잡지의 기획보다는 오락성 짙은 읽을거리에 편향되고 있는 게 실정. 잡지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제작취향에 대해 잡지문화의 발달보다는 퇴보를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소리가 높다.

잡지계 외곽에서 불어오는 바람도 있다. 인쇄업자들이 지난번의 노사문제를 겪으면서 '적정가' 요구를 관철시킬 자세이고, 저작권 조약 발효에 따른 원고료 부담의 가중(약 20% 정도), 종이값의 인상에 따라 잡지 제작의 여건은 악화될 것이 예상된다. 호조건은 개방화·민주화시대를 맞아 표현의 영역이 넓어질 것이라는 기대뿐이다.